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|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3. 25.(화) 배포 시 배포 2025. 3. 25.(화)

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

-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,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-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, 이하 중수본)는 3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(88천여 마리)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*되었다고 밝혔다.

*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(약 1~3일 소요 예상)

**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('24.10.29.~) : 41건(인천 1, 세종 3, 경기 4, 강원 1, 충북 7, 충남 5, 전북 11, 전남 5, 경북 2, 경남 2)

해당 산란계 농장*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.

* 39차 발생 농장(세종) 관련 방역지역(10km) 내에 위치

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'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(농식품부 고시)' 및 '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'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, 살처분,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.

또한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(충북 청주, 충남 천안·공주·계룡, 대전) 닭(산란계) 관련 농장, 축산시설(도축장 등),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5일(화) 12시부터 3월 26일(수)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(Standstill) 명령을 발령한다.

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,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(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),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,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, 기계·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아울러,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, 산란율 저하,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*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* 침울, 졸음, 호흡기 증상, 녹변(녹색 설사) 등

붙임 : 농장 4단계 소독 요령

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☎ 1588-9060 / 4060
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	정승교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용 (044-201-2555)
	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	책임자	과 장	문제원 (044-201-7245)
		담당자	사무관	김미정 (044-201-749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	농장 4단계 소독 요령

